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4장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163–168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두 번째 통로인 '말'을 소개하며 시작한다. 먼저 정의를 하나 내린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곧 자신의 말로 삼으시는데, 프레임은 이것이 영감의 가장 좋은 정의라고 본다. 이어서 사건으로 주시는 계시와 말로 주시는 계시를 비교한다. 둘은 같은 종류의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말은 사건의 뜻을 풀이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다. 그다음 가장 직접적인 말 계시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 시내산에서 시작해 모세와 선지자를 거쳐 예수님까지 가면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능력·권위·임재를 그대로 지닌다는 것을 보여 준다. 끝으로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천둥이나 기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히신다는 것이다. 이 답은 뒤에 나올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증언 논의로 이어진다.

📜 절별 정리

📜 1. 말로 오는 계시: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이 하나가 되다

프레임은 계시가 오는 통로(매체)를 세 가지로 나눈다. 사건, 말, 사람이다. 이 가운데 '말'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신학 논쟁도 가장 많은 통로다. 그래서 14장부터 41장까지 전부를 여기에 쓰고, 사람을 통한 계시는 42~43장에서 다룬다고 길을 안내한다. 이 계시가 '언어적'이라는 말에는 두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그리고 사람의 말을 통로로 쓴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계시 안에서는

이 '같음'을 영감의 가장 좋은 정의로 꼽는다. 각주에서는 반론도 소개한다. 하나님은 너무 초월적이셔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없고,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을 참되게 말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프레임은 이 반론에 대한 자세한 답을 부록 E로, 영감 논의는 23장으로 미룬다.

1. 계시의 통로는 사건·말·사람 세 가지다
2. '언어적' = 하나님의 말 + 사람의 말을 씀
3. 이 계시에서 둘은 실제로 갈라지지 않는다
4. 사람의 말 = 하나님의 말, 이것이 영감이다
5. 초월성 반론은 부록 E에서 다룬다

> **(이 절에서 저자가 인용한 구절 없음)**
> 정의를 세우고 이후 장들의 길을 안내하는 단락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의 이런 동일성이 영감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라고 생각한다."

📜 2. 사건 계시와 말 계시: 왜 둘 다 주시는가

사건은 그 자체로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사건 계시와 말 계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프레임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본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계시 사건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능력, 의미 있는 권위, 인격적 임재를 실어 온다. 그러니 사건도 말이 전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내용을 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두 가지를 다 주실까? 통로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한 장이 천 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을 받았다. 거꾸로 말은 사건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 곧 그 사건이 무슨 뜻인지 풀이하는 일을 한다. 또 사건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말은 기록되어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 이 영구적인 말 계시는 16장에서 다룬다.

3. 사건은 말로 다 못 할 것을 보여 준다
4. 말은 사건의 뜻을 풀이해 준다
5. 말은 기록되어 세대를 넘어 보존된다

>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로 들지만 구절은 인용하지 않음)**
> 사건은 말을 넘어서고, 말은 사건을 풀이한다는 예시

📜 3. 시내산: 하나님의 음성의 본보기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말계시다. 그 본보기는 출애굽기 20장이다. 온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 모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분으로 밝히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명하신다. 그런데 백성은 두려워 멀찍이 섰다. 그리고 모세에게 대신 말해 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다고 부탁한다. 하나님은 이 부탁을 받아들이셨고, 그 뒤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는 주로 중재자를 거친 간접 방식이 된다. 프레임은 여기서 두 부류에게 말을 건넨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믿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듣는 것을 영적 기쁨의 꼭대기로 상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프레임은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에게 그 경험은 끔찍했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기 때문이다.

1. 하나님의 음성 = 중재자 없는 직접 말씀
2. 본보기는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이다
3. 언약, 구원자 하나님, 섬김의 법을 선포
4. 백성은 두려워 중재자를 구했다
5. “직접 들으면 믿겠다”는 착각이다

> **신명기 4:13**
> 시내산 음성이 언약 선포였음을 보여 줌

출애굽기 20:2

하나님이 자신을 출애굽의 구원자로 밝히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3-17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직접 명하심(십계명)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출애굽기 20:18

백성이 두려워 멀리 섬: 직접 음성의 무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애굽기 20:19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백성이 중재를 요청함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명기 5:28-31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심: 이후 간접 계시가 중심이 됨

28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30]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 4. 음성을 들은 사람들: 모세,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

시내산 이후에도 중재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많다. 대표는 모세다. 민수기 12:8은 하나님이 모세와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까지 보았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점에서는 모세와 같았다. 각주에서 프레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신현'이라 부른다고 덧붙인다.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때와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공개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프레임은 더 중요한 사실을 짚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말씀 자체시고,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분을 거절한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1. 모세는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들었다
2. 족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3. 선지자 = 직접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
4. 세례·변화산에서 공개적인 하늘 음성
5.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이셨다

민수기 12:8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직접 대화를 보여 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신명기 4:12

이스라엘은 형상은 못 보았으나 음성은 들었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신명기 18:18

선지자의 정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마태복음 3:17

예수님 세례 때 아버지의 공개적인 음성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5

변화산의 음성, “그의 말을 들으라”가 덧붙음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2:49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하신 것만 말씀하심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48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거절한 자를 심판함

(아담·가인·노아·아브라함은 이름만 들고 구절은 인용하지 않음)

📜 5. 피조물을 쓰지만 단순한 통로가 아니다: 음성의 능력·권위·임재

하나님의 음성도 피조물을 사용한다. 사람의 언어, 주변 환경, 음파, 사람의 청각 기관, 뇌가 그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이라고 부르기는 해도,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영원히 오가는 말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피조물을 써서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이다. 그러나 이 음성은 그저 통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을 모두 드러낸다. 능력이 있어서 시내산의 이스라엘을 떨게 했다.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자리에 계셨다. 프레임은 독자에게 시내산 청중의 자리에 서 보라고 권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흠을 잡을 수 있겠는가? 요즘 코미디언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열 가지 제안'으로 바꾼다고 농담하지만, 그 자리의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순종이 전부다. 이보다 높은 권위는 없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부르고, 순종하면 복이 넘친다.

1. 음성도 언어·음파·귀·뇌를 사용한다
2. 그래서 삼위 사이의 영원한 말과는 다르다
3. 그러나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말씀 자체다
4. 능력·권위·임재가 모두 드러난다
5. 십계명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다

> **출애굽기 20:18**
> 음성의 능력: 백성이 떨었음(앞 절 인용을 다시 가리킴)
>
>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 **출애굽기 20:3-17**
> 음성의 절대적 권위: '열 가지 제안'이 아닌 명령

[3]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순종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이다."

📜 6. 진짜 음성인지 어떻게 아는가: 표적은 기준이 아니다

프레임은 남은 문제가 하나뿐이라고 말한다. 식별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처럼 음성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킬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는가? 가짜 음성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성경에는 거짓 영이 하나님의 음성인 척한 일이 여럿 나오고, 하나님은 때로 사람이 그 거짓에 속도록 허락하신다(악의 허용 문제는 프레임의 『신론』 9장을 보라는 각주가 있다). 진짜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모두 진짜를 들은 것은 아니다. 성경은 이 식별 문제를 직접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시내산에는 천둥, 번개, 짙은 구름, 큰 나팔 소리, 크게 흔들리는 산이 있었고 엄한 경고가 따랐다. 다른 때에는 불붙은 떨기나무나 천사 같은 표적이 있었고, 예수님도 말씀을 강조하려고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음성에 늘 따라온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과의 만남에는 창세기 15:17의 불 말고는 이런 기록이 없다. 선지자에게 오는 말씀은 대개 조용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오셨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기적이 따른 것도 아니다.

2. 거짓 영도 하나님의 음성을 자처한다
3. 성경은 식별법을 체계적으로 주지 않는다
4. 천둥·기적은 늘 따라오지 않았다
5.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오셨다

열왕기상 22:20-23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한 사례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마태복음 24:24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표적으로 미혹함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2

영이나 말을 사칭한 거짓 메시지에 대한 경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3:5-6

짐승의 신성모독적 말: 거짓 음성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요한계시록 16:13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요한계시록 19:20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0:10

미혹하던 마귀가 받는 최종 심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9:18

시내산의 놀라운 현상(산의 진동 등)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22, 24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엄한 경고

출애굽기 19:22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애굽기 20:18-21

그 현상이 일으킨 백성의 두려움

18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19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21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3장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표적(저자는 장만 인용)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

이사야 6장

천사의 등장이라는 표적(저자는 장만 인용)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6]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

창세기 15:17

아브라함 기사에 나오는 유일한 현상(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열왕기상 19:12

하나님은 요란한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오심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창세기 22:2

(참고, 저자 인용 아님)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명령의 예: 이삭을 바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7.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다: 확신은 초자연적이다

프레임의 결론은 이렇다.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친히 밝히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도 계시의 일부다. 자연 현상과 기적은 깊은 인상을 주지만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라는 것,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 이삭을 산으로 데려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냥 알았다'. 거짓 음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24가 위로가 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라는 조건은 실제와 반대되는 가정이다. 곧 택함받은 사람은 끝내 속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확신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 계시를 참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증언 덕분이듯, 거짓 계시를 거짓으로 아는 것도 같은 방식이다. 프레임은 이 점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지자의 말이나 성경 같은 다른 말씀 통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뒤에서 성령의 증언과 말씀의 자기 확증성을 다루고, 42장에서 성령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논하겠다고 예고한다. 각주에서는 4장의 논증, 곧 계시는 결국 스스로 자기 진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비슷한 순환은 어떤 사고 체계든 자기의 궁극적 기준을 증명하려 할 때 늘 생긴다고 덧붙인다.

1. 하나님이 듣는 이에게 친히 신원을 밝히심
2. 사탄도 기적을 행하니 기적은 뿌리가 아니다
3. 현상은 만남의 무게를 강조하는 역할이다
4. 택자는 끝내 속지 않는다: 확신은 초자연적
5. 이 원리는 성경과 성령의 증언으로 이어진다

> **데살로니가후서 2:9**
> 사탄도 기적을 행함: 기적은 확신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음
>
>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 **마태복음 24:24**
> “할 수만 있으면”은 반사실 가정: 택자는 끝내 속지 않음
>
>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 **창세기 12:1**
> (참고, 저자 인용 아님)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2

(참고, 저자 인용 아님) 이삭을 데려오라는 명령, 아브라함은 '그냥 알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 주시는 일.

매체(통로):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길. 프레임은 사건, 말, 사람 세 가지로 나눈다.

언어 계시(말씀 계시): 말을 통해 오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말을 사용한다.

사건 계시: 출애굽이나 부활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오는 계시.

영감: 성경을 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 프레임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의 같음'으로 정의한다.

하나님의 음성: 사람 중재자 없이 하나님이 직접 들리게 말씀하시는 가장 직접적인 말 계시.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대신 받아 전하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가 그 예다.

신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일. 떨기나무나 모세가 본 '형상' 같은 경우다.

주권적 속성(다스리는 능력·의미 있는 권위·인격적 임재): 프레임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설명하는 세 측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은 최종 권위이며, 그분이 친히 함께 계신다.

자기 증언(자증):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근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는 것.

성령의 증언(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일. 프레임은 42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룬다.

택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말로 오는 계시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을 곧 자신의 말로 삼으신다. 이것이 영감이다.
- 말은 사건을 풀이하고 보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과 말을 함께 주신다.
- 하나님의 음성은 피조물을 쓰지만 하나님 자신의 능력·권위·임재를 지닌 말씀이고, 그 앞에서는 순종이 전부다.
- 진짜 음성을 알아보게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증언이며, 이 원리는 성경과 성령의 증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 이 장을 쓰는 편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